

“알베르게 주방은 지금도 그대로 사용 중”

-장은정 PD

유해진 ‘이케요’ 잘 챙겨서 귀국 음식 재료? 현지 한인마트 애용 저렴한 숙박비…현지 시세 반영

차승원이 요리하고 유해진이 청소하던 스페인 하숙집은 촬영 후 어떻게 됐을까. tvN 예능프로그램 ‘스페인 하숙’이 매 회 시청률 10%(닐슨코리아)를 웃도는 인기를 얻으면서 프로그램을 향한 시청자의 궁금증도 쏟아지고 있다. 이를 모아 프로그램 연출자인 장은정 PD에 물었다.

●“알베르게, 지금도 운영 중”

차승원과 유해진, 배정남이 2월14일부터 9일간 운영한 알베르게(‘하숙집’을 뜻하는 스페인어)는 스페인 레온 주의 비야프랑카 델 비에르소에 위치해 있다. 고품스려운 외관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집은 실제 순례자를 상대해온 숙박시설이다. 장은정 PD는 “겨울에는 순례자가 10분의 1로 줄어 많은 알베르게가 3월까지 문을 닫는다”며 “우리가 빌린 집도 그 시기에 문 닫는 곳이었다”고 소개했다.



장은정 PD



tvN ‘스페인하숙’

촬영을 위해 개조한 곳은 주방과 식당 뿐이다. 대여 당시 ‘촬영 후 복귀 원칙’으로 계약했지만 차승원의 요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보여주려고 제작진이 넓게 고친 주방은 실제 알베르게 주인이 마음에 들어 해, 그대로 사용 중이라고 한다. ‘설비부’를 자처한 유해진은 알베르게 곳곳을 빙글이게 했다. 장은정 PD는 “순례자가 묵는 ‘아늑이방’과 ‘헬이방’은 침대만 몇 개 더 놓았을 뿐 별로 바꾸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촬영에 상관없이 청소에 열중한 유해진 덕분에 새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유해진이 ‘이케요’라고 이름 붙

여 만든 와인보관함 등 가구의 행방도 궁금증을 자극한다. 장 PD는 “애정을 듬뿍 쏟은 물건들이라서인지 유해진이 잘 챙겨 귀국했다”고 웃음을 터뜨렸다.

●“음식 재료 조달, 현지 공수”

매 끼니마다 차승원이 척척 만드는 다양한 한식은 시청자의 시선을 붙잡는 원동력이다. 그는 순례자를 위해 고기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부터 푹 고은 꼬리곰탕까지 여러 한식 메뉴를 정성스레 만들어 내놓는다.

그런 차승원을 위해 주방 서랍에는 미

역, 김 등 여러 재료가 빼곡하다. 대부분 재료는 전부 챙겨갈 수 없으니 현지서 최대한 공수했다. 장은정 PD는 “채소, 고기 등은 현지에서 구입했고 한인마트도 자주 이용했다”며 “육수용 다시마처럼 현지에 보기 드문 건조 재료는 한국에서 꼼꼼히 싸갔다”고 설명했다. 촬영 전 차승원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순례자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미리 구성한 덕분에 현지에서 ‘재료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룻밤 13유로? 순례길 문화의 묘미” ‘스페인 하숙’을 찾는 이들은 깨끗한 숙소에서 자고 따뜻한 두 끼 식사까지 먹는데 단 13유로(1만7000원)를 낸다. 이에 시청자들은 “너무 싼 것 아니냐”며 놀라워한다. 하지만 전혀 낮은 금액이 아니다. 제작진이 설정한 숙박료 5유로, 저녁식사 5유로, 아침식사 3유로는 주변 알베르게와 비슷한 수준이다.

장은정 PD는 “순례자가 묵는 알베르게는 봉사의 마음으로 저렴한 가격에 숙박과 식사를 제공한다”며 “스페인 하숙’ 역시 차승원이 순례자를 향한 마음을 담아 두둑하게 올린 ‘고봉밥’ 때문에 비싸 보인 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

11

2019년 5월 9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해시태그 킷



정국-아리아나 그란데 절친 인증

국적을 넘어 음악으로 뭉친 우정이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원곡)과 미국 유명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만났다. 미국에서 월드투어 중인 정국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을 관람한 뒤 그와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브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의 친분에 방탄소년단의 월드 파워를 실감케 한다. 팬들은 “글로벌 인맥” “스타와 스타의 만남” 등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포스트 #BTS #정국 #아리아나그란데 #글로벌인맥

김수미·장동민, 나이 초월한 ‘영혼의 콤비’

‘마리텔2’서도 찰떡 호흡 과시

30세 나이 차가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호흡이다. 연기자 김수미(70)와 방송인 장동민(40)이 예능프로그램의 ‘명콤비’로 떠오르고 있다. tvN 인기 예능프로그램 ‘수미네 반찬’을 통해 ‘찰떡 호흡’을 과시한데 이어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2’(마리텔2)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당긴다.

김수미와 장동민의 인연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KBS 2TV 예능프로그램 ‘나를 돌아봐’를 통해 처음 만난 두 사람의 조합은 꽤나 신선했다. 평소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 장동민이 물불 가리지 않고 더 화끈한 성격을 자랑하는 김수미를 만나 여전한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시청 포인트였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수미네 반찬’에서 재회했다.

요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요란치!”라며 눈대중으로 고추장을 퍼내는 김수미를 보며 “한 큰 술”이라고 재해석(?)해주는 장동민의 대화법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때로는 엄마와 아들과 같이 티격태격



장동민-김수미

하면서 서로를 위한 모습도 주요 시청층인 30~40대 여성 시청자들에게 어필했고, 그 인연으로 ‘마리텔2’까지 함께 출연하게 됐다.

‘마리텔2’는 맛글을 통해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라 개그맨 출신의 장동민이 뛰어난 순발력과 김수미의 입담이 어우러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의 조합은 당분간 계속 이어진다. 김수미와 장동민은 최근 진행한 ‘마리텔2’ 녹화에 한 번 더 참여했다. 이번에는 댄스스포츠선수 박지우와 함께 ‘출방’에 도전한다.

유지혜 기자

찌우고 줄이고…배우들의 고무줄 몸무게

김무열, 15kg 늘려 근육질 변신
하정우는 550km 걸어 8kg 감량

찌우고, 줄이고, 역할을 위해서라면 그 까짓 몸무게는 문제가 아니다. 영화에 참여하는 배우들의 ‘고무줄 몸무게’가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액션영화를 소화하려고 근육을 늘리기도 하고, 체중감량을 위해 2주간 550km를 걷은 배우도 있다.

15일 개봉하는 ‘악인전’의 주인공 김무열은 체중 15kg을 늘려 만든 근육질 몸으로 영화에 출연했다. ‘조폭’과 손잡고 연쇄 살인마를 추적하는 형사 역을 맡은 그는 상대역이 ‘하필’ 마동석인 까닭에 출연을 확정하고부터 근육 키우기에 돌입했다. 몸을 내던지는 고난도 액션 장면이 상당한 만큼 마동석과 치고받는 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자구책이었다.

김무열은 “살만 찌운 게 아니라 근육 증량을 위한 벌크업까지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뭉치라고 굵게 만들어야(마동석과 붙는)액션연기가 가능할 것 같았다”고 밝혔다.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의 아내 역을 맡은 장혜진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출연 제안 때부터 감독에



영화 ‘악인전’의 김무열

사진제공 | 카위미디어그룹

게 체중 증량을 주문받은 그는 처음 5kg을 불렀지만 “더 찌우길 바라는 감독의 뜻”에 따라 하루 여섯 끼씩 먹으면서 15kg까지 늘렸다. ‘전국체전 해머던지기 선수 출신’이란 설정 아래 살집은 있지만 날렵함까지 갖춘 몸을 만들어야 했다.

증량만큼 어려운 건 감량이다. 김무열과 장혜진은 영화 촬영을 마치고 15kg의 몸무게를 전부 감량했다. 이들과 반대로 영화와 역할을 위해 다이어트에 나서는 배우도 여럿. 그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얼마 전 영화 ‘클로젯’을 촬영한 하정우는 쉬는 동안 늘어난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2주간 무려 550km를 걷은 끝에 8kg을 뺐다. 배우 류승룡도 ‘극한직업’ 촬영 때 한달씩 단식으로 5kg을 감량했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성접대·횡령 혐의’ 승리, 결국 구속영장

두 달간 17차례 소환 조사 끝에 버닝썬 사태 경찰 수사도 막바지

경찰이 성매매 알선과 자금 횡령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29)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월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벌인 지 두 달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승리와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 씨(34)에 대해서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막바지로



승리

치닫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해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하고 버닝썬에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회장은 승리의 일본식 라멘 프랜차이즈 등에 투자한 인물이다.

총 17차례 조사를 받은 승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유모 씨가 최근 혐의 일부를 시인하면서 수사에 급물살을 탔다. 승리가 일본인 투자자의 숙박비

3000만 원을 당시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유모 씨는 접대를 위해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 일부를 알선책 계좌에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운영과 관련해 2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의 자금을 승리와 유모 씨가 함께 운영한 또 다른 주점 ‘몽키뮤지엄’에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지출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승리의 2015년 일본인 사업가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 파티에서도 성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생일 파티에 초대된 유승호씨 여종업원들에게 여행 경비로만 보기 어려운 액수의 돈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여종업원들은 “성관계는 자발적이었고, 받은 돈도 여행

인천공항고속도로 사망자는 한지성



한지성

한지성은 6일 오전 3시52분 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에서 조수석에 탄 남편이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당했다. 한지성은 2010년 4인조 걸그룹 비틀스로 데뷔해 서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 이후 드라마 ‘해피시스터즈’ ‘끝에서 두 번째 사랑’, 영화 ‘원펀치’ ‘로봇, 소리’ 등에 출연했다.

학폭 논란 윤서빈 ‘프듀101’ 하차



윤서빈

학교폭력 가해자 의혹을 받은 JYP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윤서빈이 회사에서 방출되고 출연 중인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에서도 하차한다. JYP엔터테인먼트는 8일 “회사의 방침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윤서빈과 연습생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3일 ‘프로듀스X101’ 첫 방송 후 온라인에는 윤서빈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제보, 술과 담배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SBS ‘배가본드’ 넷플릭스서도 공개



배가본드

이승기·배수지 주연의 SBS 금토드라마 ‘배가본드’가 넷플릭스에서도 공개된다. 8일 제작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는 “9월 방송하는 ‘배가본드’를 TV 공개 이후 넷플릭스에서도 공개하기로 확정했다”며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공개할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배가본드’는 민항 여객기 추락 사고에 연루된 남자가 거대한 국가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을 담은 액션 첩보물이다.

이정연 기자 anjoy@donga.com